2026.05.20

[국내주식 마감시황]

이재원 Market Analyst | jaewon2.lee@yuantakorea.com
김세빈 Research Assistant | sebin2.kim@yuantakorea.com

노사 협상 결렬에도 주가 강보합 마감이 의미하는 바

KOSPI 7,208pt(-0.9%), KOSDAQ 1,056pt(-2.6%)

해외 시황 — 반도체 기대감에도 유가와 금리 부담이 차익실현 명분으로 작용

- 미국 주식시장 하락(S&P500 -0.7%, NASDAQ -0.8%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0.03%). 엔비디아 실적, FOMC 의사록 대기하는 가운데 특별한 모멘텀 부재.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유가-금리 상승이 빅테크 포함 주식시장 하방압력으로 작용. 마이크론(+2.5%), Citi 포함 외국계 IB 목표주가 상향 잇따르며 스토리지 기대감은 지속, 반도체 지수 견인

수급 — 외국인 순매도에도 개인 대규모 순매수 하며 지수 견인 지속

-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+1.7조원, 외국인 -2.9조원, 기관 +1.1조원(금융투자 1조원) 순매수.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10거래일 연속 지속. KOSDAQ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. 이는 3월 전쟁 우려로 유가, 금리, 원/달러 환율 동반 급등했던 당시와 유사. 장기 자금 유입으로 판단하지 않음

시황 — 최악의 이벤트 반영에도 견조한 주가. 3월을 떠올릴 필요

- 금일 KOSPI, KOSDAQ 각각 0.9%, 2.6% 하락. 삼성전자 노사 협상 최종 결렬. 오후 4시 현재 노사 교섭 재개. 노동부장관 직접 중재 중. 이재명 대통령, 협상 결렬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노조측 강하게 비판. ① 영업이익 배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이해 안간다는 발언과 ② 노동3권은 노동자 보호 위한 것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. 내일 총파업 앞두고 긴급조정권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도 존재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의중 반영한 노동부장관의 중재 가능성에 시장은 기대감 반영. 종가 기준 +0.2% 강보합 마감. 시간외 NXT장서 상승폭 확대중인 흐름

- 내일 새벽 3시 FOMC 의사록, 6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가운데 오늘의 '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'이라는 최악의 이벤트 반영에도 강보합 마감한 삼성전자 주가는 비관보다는 희망을,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. 오늘 장중 도달한 KOSPI 저가 7,053pt는 전일 12개월 선행 EPS 1007pt 기준 7.00배. 밸류에이션 역시 지수 하방 지지

- 3월 전쟁 이슈로 유가, 금리, 원/달러 환율 급등하며 KOSPI 5,000pt 근접했던 3월 말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. 4월 초 5천pt 초반에서 5월 초 8천pt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어떤 순간에도 유가, 금리, 원/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됐을 뿐 해당 요소들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 혹은 과거 10개년, 20개년 평균 수준으로의 회귀가 없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. 반도체 외에도 조선, 기계(전력), 증권 등 낙폭 과대 업종들 다수 보유. 변동성 완화될 경우 매수 대기 자금(예탁금)도 127조, 5월초 8천pt 돌파하던 수준 유지 중

이벤트 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하며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의사록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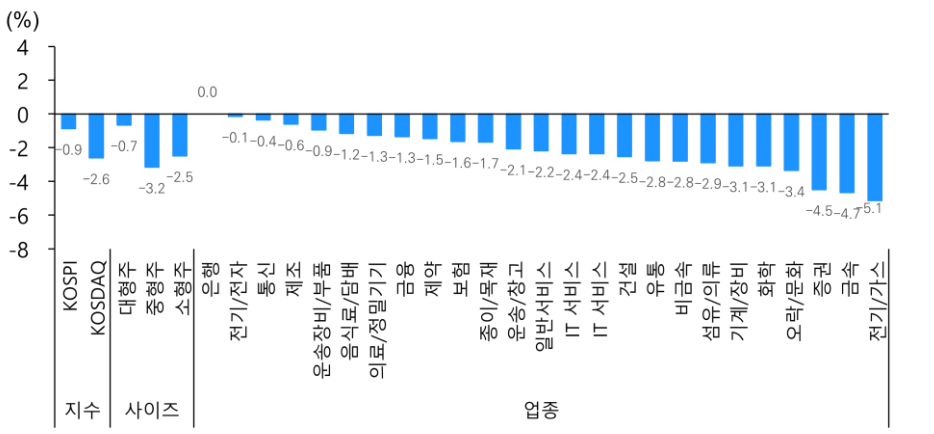
- 1) 미국: FOMC 의사록(21일 오전 3시), 엔비디아 실적(21일 오전 6시) 2) 한국: 삼성전자 총파업 시작일

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

(단위: 억원)	KOSPI	KOSDAQ
기관	11,053	-1,309
외국인	-29,293	1,942
개인	17,107	-575
거래대금	395,425	129,590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일간 수익률

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(Korea)

Appendix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이재원)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